

다문화가정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은진* · 이교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히고,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관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우울감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우울감에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우울감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다문화가정, 우울감,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 매개효과

1. 문제제기

한국은 과거 단일민족 국가 이념이 강한 나라였으나,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해 다문화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비율은 1995년 전체의 2.6%에서 2005년 8%로 약 3배 가량 증가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전체 혼인율의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2013). 이러한 통계청의 자료를 볼 때, 한국 사회 내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정은 이민자와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이다. 다

* 대구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학, zjangtori@nate.com

** 대구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사회복지학, rewaev@naver.com(교신저자)

문화가정은 한국인을 배우자로 둔 가정보다 우울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을 우려가 있다. 우울의 주요 예측 요인은 낮은 사회적 지지와 높은 스트레스를 제시하고 있는데(Kendler et al., 2005; Nezlak et al., 2000), 다문화가정은 우울의 주요 예측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임혁, 2010; 조인주·현안나, 2012). 또한, 우울은 남성보다 여성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우울 발병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우울은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증상으로써, 적기에 관리하지 못할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하주영·김윤지, 2013), 우울에 대한 예방 및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다(조인주·현안나, 2012; 임수진 외, 2009; 하주영·김윤지, 2013; 노소영·김은영, 2012, 김현실, 2011). 우울에 대한 연구대상이 결혼이주여성이 되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점과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을 떠나 이주국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 대한 국내인의 저평가와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 내 약자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장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정의 가구주로서 책임지는 한국인 남성에게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인 남성은 결혼이주여성과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시선, 배우자와의 문화의 차이로 경험하는 갈등 등으로 우울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이영희, 2010; 김민경·박경애, 2012, 김계하 외, 2013).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남편과 아내의 우울 예측 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문화가정의 우울을 낮추는 주요 예측 요인으로는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민자가 초창기에 이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을 통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기에, 다문화가정의 우울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이다.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서적·물질적 지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가족, 경제, 미래, 배우자 등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울은 개인이 주위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을 때 정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에서 생활만족도는 우울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의 우울감에 유용한 예측인자임을 밝히고, 동시에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사회복지법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의 우울감과 사회적 지지

DSM-IV-TR에 따르면 우울은 우울증 증상 가운데 적어도 5개를 보이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되는 것으로써, 슬픔, 낙담, 일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등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울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각 학자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인지적 모델에 따르면 학습된 무기력과 부정적 사고이론이 우울을 높이는 예측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된 무기

력을 주장한 Seligman(1975)에 따르면, 더 이상 강화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무기력한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우울해진다고 한다. Beck(2002)은 우울의 예측요인인 부정적 사고는 세 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1) 자신의 경험, 2) 자기 자신, 3)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부정적 사고는 긍정적인 의미를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최대화함으로써 우울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모델에서는 우울의 발생하는 원인을 내담자의 삶을 지지해주는 사회적 지원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우울해진다고 주장한다(Doss et al., 2008; Kendler et al., 2005). 따라서 사회문화적 모델은 인지적 모델처럼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예측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보살핌을 받으며 가치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상호작용이며, 개인으로 하여금 상호의무가 있는 관계망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나 사회적 관계를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Cohen & Syme, 1985).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외부 스트레스로부터의 보호 및 완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안녕한 상태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할 수 있다(Lakey & Orehek, 2011).

이민자는 이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인해 모국에서 형성되었던 사회적 지지망에서 벗어나게 되며,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민국에 대한 낯선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은 이민자가 이민국에 대한 적응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정기선·한지은, 2009). 특히, 이민자가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배제는 이민자로 하여금 우울을 높이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된다(현경자·김연수,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민자가 한국인과 교류가 빈번할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았으며(임혁, 2010), 남편, 시부모, 이웃 등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김창기·이진성, 2012; 정주연, 2008; 김현실, 2011)라는 것을 볼 때,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인지적이고 평가적인 반응으로, 개인 스스로 기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진경, 2012). 총체적 삶이란 가족, 친구, 경제수준, 미래에 대한 기대 등 개인의 주위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만족도는 객관적인 개념과 주관적인 개념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생활만족도의 객관적인 개념은 개인의 소득수준, 주거환경, 의료보전 서비스 이용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조작화된 개념이다(김한성·이유신, 2013). 반면, 생활만족도의 주관적인 개념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의거해 총체적인 삶의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Valois et al., 2004). 따라서, 개인 및 가족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할 때는 객관적인 개념과 주관적인 개념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의 경우 생활만족도는 소득, 건강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살펴보는 개념보다는 이주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자는 모국에서 경험하였던 삶과 이주국에서 경험한 삶의 수준을 비교를 통해 생활만족도가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김한성·이유신, 2013).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의 수준,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 등에 대한 만족 수준임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어 있다(Fernandez Ballesteros, Zamarron and Ruiz, 2001).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이 받는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연수, 2012; 권구영·박근우, 2007; 이민아, 2010). 개인이 받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요인을 완충시킴으로 인해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주위 상황에 대한 시각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 주관적인 생활만족 수준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이민자들의 생활에 대한 적응

과 만족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됨을 시사해준다.

3) 다문화가정의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우울감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단순히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보기도 하는 적응과정에서 유발된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내적 자원 및 외적 지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김현실, 2011).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관련한 변수로 연령, 이민동기, 생활 스트레스 사건, 교육수준, 취업상태,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 등을 제시하지만(Fenta, Hyman & Noh, 2004), 이민자가 새로운 이민국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이민국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에 의거한 생활만족도가 중요하다(Bhugra, 2003; Huang & Mathers, 2008).

우울은 개인이 주위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다(Beck, 2002). 이민자가 이민국에서 언어, 문화에 대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충하지 못할 경우 이민자는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수준은 저하하게 된다(허철행·임경숙, 2011; 김진희·박옥임, 2008; 김연수,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으면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 유연성이 높아지며(박민서, 2011),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낮추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를 예측요인으로 제시하였다(김현실, 2011). 김현실(2011)에 따르면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지지보다 설명력이 높다고 제시함으로써, 우울을 낮추는 예측 변인으로써 생활만족도가 중요한 변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생활만족도는 이민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경제 등 총체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에 의한 만족 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울의 예측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때,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생활만족도는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 우울감의 관계에서 인과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우울감에 실

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생활만족도가 이들 간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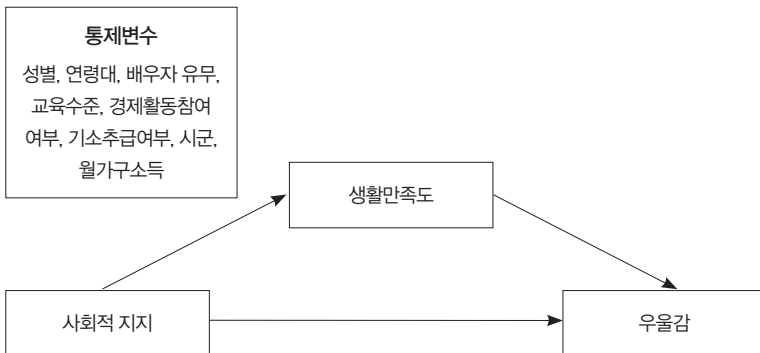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복지패널 조사는 경상북도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장 및 서비스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실시한 기초통계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경상북도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2013년 6월에 조사한 자료로써, 조사대상자 중 다문화가정 131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복지패널조사에서 사용한 6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내용은 '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② 나는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 ③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다. ④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 ⑤ 나만 소외당하는 느낌이다. ⑥ 마음만 먹으면 친구를 쉽게 사귈다.'를 포함하며,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1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대체로 동의한다'가 4점, '매우 동의한다'가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②, ③, ⑤번 항목은 부적(-) 항목으로 역채점을 하였으며, 6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활용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Cronbach's α 값은 .728이었다.

(2) 종속변수: 우울감

종속변수인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복지패널조사에서 사용한 11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내용은 '①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② 비교적 잘 지냈다. ③ 상당히 우울했다. ④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⑤ 잠을 설쳤다(잘 이루지 못했다). ⑥ 세상에 나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⑦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⑧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⑨ 마음이 슬펐다. ⑩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⑪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등 각 영역에서의 감정을 지각 수준을 묻는 형태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극히 드물다'가 1점, '가끔 있었다'가 2점, '종종 있었다'가 3점, '대부분 그랬다'가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②, ⑦번 항목은 부적(-) 항목으로 역채점을 하였으며, 11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활용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우울감의 Cronbach's α 값은 .843이었다.

(3) 매개변수: 생활만족도

매개변수인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복지패널조사에서 사용한 13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내용은 '① 가족간의 관계 ② 나의 현재 수입 ③ 나 자신의 건강 ④ 내 집의 주거환경 ⑤ 미래에 대한 대비 ⑥ 내가 현재 하는 일이나 사업 ⑦ 내가 그동안 해온 일의 성과 ⑧ 나의 문화생활 ⑨ 나의 현재의 생활수준 ⑩ 나의 사회적 활동 ⑪ 현재의 재산 ⑫ 나의 친구관계 ⑬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등 각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묻는 형태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한다'가 1점, '대체로 불만족한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대체로 만족한다'가 4점, '매우 만족한다'가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개 문항에 대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를 통해 총 12개 문항을 활용했다. 본 척도는 12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활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의 Cronbach's α 값은 .810이었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 성별은 회귀분석을 위하여 '0=여성, 1=남성'으로 더미변수하여 처리하였다. 연령대는 '1=30대 이하, 2=40대, 3=50대, 4=60대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했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을 사용하였다. 배우자 여부는 회귀분석을 위하여 '0=독신, 1=배우자'으로 더미변수하여 처리하였다. 교육수준은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했으며, 회귀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경제활동참여여부는 회귀분석을 위하여 '0=경제활동 미참여, 1=경제활동 참여'으로 더미변수하여 처리하였다. 기초수급여부는 회귀분석을 위하여 '0=차상위계층, 1=기초생활계층'으로 더미변수하여 처리하였다. 시군은 회귀분석을 위하여 '0=군, 1=시'으로 더미변수하여 처리하였다. 월가구소득은 '1=50만원 이하, 2=51~100만원, 3=101~150만원, 4=151~200만원, 5=201만원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했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월가구소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은 먼저, 대상자의 일구 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했으며,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t검증과 F검증을 수행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 및 그들간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Baron & Kenny(1986)의 방법을 적용했다. Baron & Kenny (1986)의 매개효과검증은 총 3단계로써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3단계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후 매개변수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와 통계적 검증을 위해 MacKinnon et al.(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test 검정값을 제시했다. Sobel 검정에 의한 Z값은 $Z > 1.96$ 또는 $Z < -1.96$ 을 만족하는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다문화가정의 성별은 남성이 71명(54.2%)로서 여성 60명(45.8%)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연령대는 40대가 59명(45.0%), 50대 28명(21.4%), 30대 이하 23명(17.6%), 60대 이상 21명(16.0%)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독신이 70명(53.4%)로서 배우자 61명(46.6%)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77명(58.8%), 중학교 졸업 27명(20.6%), 고등학교 졸업 21명(16.0%), 초등학교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변인 | 구분 | 빈도(명) | 백분율(%) |
|------------|------------|-------|--------|
| 성별 | 여성 | 60 | 45.8 |
| | 남성 | 71 | 54.2 |
| 연령대 | 30대 이하 | 23 | 17.6 |
| | 40대 | 59 | 45.0 |
| | 50대 | 28 | 21.4 |
| | 60대 이상 | 21 | 16.0 |
| 배우자 유무 | 독신 | 70 | 53.4 |
| | 배우자 있음 | 61 | 46.6 |
| 교육수준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6 | 4.6 |
| | 중학교 졸업 | 27 | 20.6 |
| | 고등학교 졸업 | 21 | 16.0 |
| | 전문대학 졸업 이상 | 77 | 58.8 |
| 경제활동 참여 여부 | 경제활동 미참여 | 47 | 35.9 |
| | 경제활동 참여 | 84 | 64.1 |
| 기초수급형태 | 차상위계층 | 50 | 38.2 |
| | 기초생활수급계층 | 81 | 61.8 |
| 시군 | 군 | 55 | 42.0 |
| | 시 | 76 | 58.0 |
| 월가구소득 | 50만원 이하 | 16 | 12.3 |
| | 51~100만원 | 36 | 27.5 |
| | 101~150만원 | 44 | 33.6 |
| | 151~200만원 | 23 | 17.6 |
| | 201만원 이상 | 12 | 9.2 |

교 졸업 이하 6명(4.6%)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경제활동 참여가 84명(64.1%), 경제활동 미참여 47명(35.9%)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기초수급형태는 기초생활수급계층이 81명(61.8%), 차상위계층 50명(38.2%)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시군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76명(58.0%)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 55명(42.0%)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월가구소득은 101~250만원이 44명(33.6%), 51~100만원 36명(27.5%), 151~200만원 23명(17.6%), 50만원 이하 16명(12.3%), 201만원 이상이 12명(9.2%)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다문화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 또는 F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의 경제활동 참여하는 집단(M=3.35, SD=0.55)이 경제활동 미참여하는 집단(M=3.05, SD=0.65)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851$, $p<.01$)). 기초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분석

| 변인 | 구분 | N | M(SD) | t/F |
|------------|---------------|----|------------|----------|
| 성별 | 여성 | 60 | 3.27(0.61) | 0.488 |
| | 남성 | 71 | 3.22(0.60) | |
| 연령대 | 30대 이하(a) | 23 | 3.31(0.82) | 2.071 |
| | 40대(b) | 59 | 3.32(0.57) | |
| | 50대(c) | 28 | 3.23(0.51) | |
| | 60대 이상(d) | 21 | 2.96(0.47) | |
| 배우자 유무 | 독신 | 70 | 3.24(0.59) | -.077 |
| | 배우자 있음 | 61 | 3.25(0.61) | |
| 교육수준 | 초등학교 졸업 이하(a) | 6 | 3.41(0.31) | 2.059 |
| | 중학교 졸업(b) | 27 | 3.01(0.39) | |
| | 고등학교 졸업(c) | 21 | 3.20(0.60) | |
| | 전문대학 졸업 이상(d) | 77 | 3.32(0.66) | |
| 경제활동 참여 유무 | 미참여 | 47 | 3.05(0.65) | -2.851** |
| | 참여 | 84 | 3.35(0.55) | |
| 기초수급 여부 | 차상위계층 | 50 | 3.43(0.59) | 2.858** |
| | 기초수급계층 | 81 | 3.13(0.58) | |
| 시군 | 군 | 55 | 3.29(0.48) | .706 |
| | 시 | 76 | 3.21(0.68) | |
| 월가구소득 | 50만원 이하(a) | 16 | 3.13(0.79) | 1.928 |
| | 51~100만원(b) | 36 | 3.08(0.46) | |
| | 101~150만원(c) | 44 | 3.26(0.59) | |
| | 151~200만원(d) | 23 | 3.43(0.66) | |
| | 201만원 이상(e) | 12 | 3.49(0.48) | |

* $p<.05$, ** $p<.01$, *** $p<.001$

수급여여부는 차상위계층(M=3.43, SD=0.59)이 기초수급계층(M=3.13, SD=0.58)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858, p<.01$). 그 외 성별, 연령대,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시군, 월가구소득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다문화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 검증 또는 F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의 성별, 연령대,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우울감에 대한 차이 분석

| 변인 | 구분 | N | M(SD) | t/F |
|------------|---------------|----|------------|--------|
| 성별 | 여성 | 60 | 2.01(0.62) | -.035 |
| | 남성 | 71 | 2.02(0.56) | |
| 연령대 | 30대 이하(a) | 23 | 2.10(0.65) | 1.404 |
| | 40대(b) | 59 | 1.97(0.57) | |
| | 50대(c) | 28 | 1.91(0.48) | |
| | 60대 이상(d) | 21 | 2.22(0.66) | |
| 배우자 유무 | 독신 | 70 | 2.08(0.60) | 1.322 |
| | 배우자 있음 | 61 | 1.95(0.57) | |
| 교육수준 | 초등학교 졸업 이하(a) | 6 | 2.03(0.37) | .119 |
| | 중학교 졸업(b) | 27 | 2.04(0.60) | |
| | 고등학교 졸업(c) | 21 | 2.08(0.60) | |
| | 전문대학 졸업 이상(d) | 77 | 2.00(0.60) | |
| 경제활동 참여 유무 | 미참여 | 47 | 2.13(0.62) | 1.610 |
| | 참여 | 84 | 1.96(0.56) | |
| 기초수급 여부 | 차상위계층 | 50 | 1.90(0.58) | -1.832 |
| | 기초수급계층 | 81 | 2.10(0.58) | |
| 시군 | 군 | 55 | 1.99(0.53) | -.525 |
| | 시 | 76 | 2.04(0.62) | |

| 변인 | 구분 | N | M(SD) | t/F |
|-------|--------------|----|------------|-------|
| 월가구소득 | 50만원 이하(a) | 16 | 2.23(0.55) | 1.533 |
| | 51~100만원(b) | 36 | 1.98(0.64) | |
| | 101~150만원(c) | 44 | 2.11(0.62) | |
| | 151~200만원(d) | 23 | 1.87(0.40) | |
| | 201만원 이상(e) | 12 | 1.83(0.58) | |

* $p < .05$, ** $p < .01$, *** $p < .001$

여 유무, 기초수급여부, 시군, 월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우울감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다문화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 또는 F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의 여성($M=2.50$, $SD=0.52$)이 남성($M=2.17$, $SD=0.59$)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398$, $p < .01$). 다문화가정 연령대($F=3.226$, $p < .05$)와 교육수준($F=4.998$, $p < .01$)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연령대와 교육수준 하위 변인들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30대 이하인 집단이 60대 이상인 집단보다, 전문대학 졸업이상인 집단이 중학교 졸업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참여하는 집단($M=2.41$, $SD=0.49$)이 경제활동 미참여하는 집단($M=2.16$, $SD=0.69$)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119$, $p < .05$). 그 외 배우자 유무, 기초수급 여부, 월가구소득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 분석

| 변인 | 구분 | N | M(SD) | t/F |
|-------------------|---------------|----|------------|---------|
| 성별 | 여성 | 60 | 2.50(0.52) | 3.398** |
| | 남성 | 71 | 2.17(0.59) | |
| 연령대 ¹ | 30대 이하(a) | 23 | 2.49(0.71) | 3.226* |
| | 40대(b) | 59 | 2.37(0.53) | |
| | 50대(c) | 28 | 2.32(0.46) | |
| | 60대 이상(d) | 21 | 1.99(0.60) | |
| 배우자 유무 | 독신 | 70 | 2.38(0.57) | 1.268 |
| | 배우자 있음 | 61 | 2.25(0.59) | |
| 교육수준 ² | 초등학교 졸업 이하(a) | 6 | 2.54(0.45) | 4.998** |
| | 중학교 졸업(b) | 27 | 2.01(0.48) | |
| | 고등학교 졸업(c) | 21 | 2.19(0.55) | |
| | 전문대학 졸업 이상(d) | 77 | 2.45(0.58) | |
| 경제활동 참여 유무 | 미참여 | 47 | 2.16(0.69) | -2.119* |
| | 참여 | 84 | 2.41(0.49) | |
| 기초수급 여부 | 차상위계층 | 50 | 2.39(0.57) | 1.139 |
| | 기초수급계층 | 81 | 2.27(0.59) | |
| 시군 | 군 | 55 | 2.31(0.48) | -.244 |
| | 시 | 76 | 2.33(0.64) | |
| 월가구소득 | 50만원 이하(a) | 16 | 2.06(0.82) | 1.496 |
| | 51~100만원(b) | 36 | 2.25(0.52) | |
| | 101~150만원(c) | 44 | 2.38(0.53) | |
| | 151~200만원(d) | 23 | 2.42(0.58) | |
| | 201만원 이상(e) | 12 | 2.48(0.51) | |

* p<.05, ** p<.01, *** p<.001

5)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투입된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들 간

- 1 사후분석 scheffe 검증한 결과, 6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후분석 scheffe 검증한 결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중학교 졸업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했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과 배우자 유무가 .705($p < .01$)로써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수준과 연령이 $-.601$ ($p < .01$), 우울감과 사회적 지지가 $-.496$ ($p < .01$), 우울감과 생활만족도가 $-.353$ ($p < .01$), 시군과 배우자 유무가 $-.353$ ($p < .01$), 월가구소득과 배우자 유무가 $.322$ ($p < .01$), 월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참여 유무가 $.301$ ($p < .01$), 사회적 지지와 월가구소득이 $.293$ ($p < .01$), 생활만족도와 성별이 $-.287$ ($p < .01$), 시군과 성별이 $-.285$ ($p < .01$), 연령과 성별이 $.270$ ($p < .01$), 생활만족도와 연령이 $-.250$ ($p < .01$), 사회적 지지와 기초수급여부가 $-.244$ ($p < .01$), 사회적 지지와 경제활동 참여유무가 $.243$ ($p < .01$), 생활만족도와 월가구소득이 $.242$ ($p < .01$), 우울감과 월가구소득이 $-.221$ ($p < .05$), 월가구소득과 배우자 유무가 $.219$ ($p < .05$), 월가구소득과 연령이 $-.214$ ($p < .05$), 경제활동 참여 유무와 연령이 $-.192$ ($p < .05$),

표 5.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변수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성별(1) | 1 | | | | | | | | | | |
| 연령(2) | .270** | 1 | | | | | | | | | |
| 배우자유무(3) | .705** | .219* | 1 | | | | | | | | |
| 교육수준(4) | -.156 | -.601** | -.092 | 1 | | | | | | | |
| 경제활동 참여 유무(5) | -.177* | -.192* | .028 | .095 | 1 | | | | | | |
| 기초수급 여부 (6) | -.155 | .016 | -.180* | 0.25 | -.162 | 1 | | | | | |
| 시군(7) | -.285** | -.039 | -.353** | .163 | -.120 | .159 | 1 | | | | |
| 월가구소득(8) | .183* | -.214* | .322** | .085 | .301** | -.154 | -.108 | 1 | | | |
| 사회적 지지(9) | -.043 | -.187* | .007 | .140 | .243** | -.244** | -.062 | .293** | 1 | | |
| 생활만족도 (10) | -.287** | -.250** | -.111 | .220* | .201* | -.100 | .020 | .242** | -.062 | 1 | |
| 우울감(11) | .003 | .033 | -.116 | -.034 | -.140 | .159 | .046 | -.221* | -.496** | -.353** | 1 |

* $p < .05$, ** $p < .01$, *** $p < .001$

월가구소득과 성별이 $.183(p < .05)$, 기초수급여부와 배우자 유무가 $-.180(p < .05)$, 경제활동 참여 유무와 성별이 $-.177(p < .05)$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별과 교육수준, 성별과 기초수급 여부, 성별과 사회적지지, 성별과 우울감, 연령과 기초수급여부, 연령과 시군, 연령과 우울감, 배우자 유무와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와 경제활동 참여 유무, 배우자 유무와 사회적지지, 배우자 유무와 생활만족도, 배우자 유무와 우울감,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 유무, 교육수준과 기초수급여부, 교육수준과 시군, 교육수준과 월가구소득, 교육수준과 사회적지지, 교육수준과 우울감, 경제활동 참여 유무와 기초수급여부, 경제활동 참여 유무와 우울감, 기초수급여부와 시군, 기초수급여부와 월가구소득, 기초수급여부와 생활만족도, 기초수급여부와 우울감, 시군과 월가구소득, 시군과 사회적지지, 시군과 생활만족도, 시군과 우울감,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와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매개회귀분석(Mediating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0.80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는 $.414 \sim .885$ 였으며, 분산팽창계수(VIF)가 $1.130 \sim 2.413$ 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Durbin-Watson을 살펴본 결과 $1.644 \sim 1.978$ 로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의 첫 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인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27.8%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beta=.379, p<.001$),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했다. 통제변수 가운데에서는 성별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β

표 6. 1단계 분석 결과

| 변수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 | 비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 | 공선성 통계량 | |
|---------------------|--------------------------|----------|------|---------------------|----------|---------|-------|
| | | B | SE | β | | 공차 | VIF |
| (상수) | | 1.012 | .507 | | 1.994 | | |
| 통제변수 | 성별 ¹⁾ | -.412 | .129 | -.355 | -3.199** | .450 | 2.225 |
| | 연령 | .000 | .006 | -.006 | -.063 | .534 | 1.871 |
| | 배우자 유무 ²⁾ | .097 | .133 | .084 | .731 | .420 | 2.382 |
| | 교육수준 | .067 | .059 | .110 | 1.141 | .601 | 1.664 |
| | 경제활동 참여 여부 ³⁾ | -.028 | .101 | -.023 | -.276 | .789 | 1.267 |
| | 기초수급 여부 ⁴⁾ | -.029 | .094 | -.025 | -.312 | .885 | 1.130 |
| | 시군 ⁵⁾ | -.032 | .097 | -.028 | -.332 | .810 | 1.235 |
| 독립변수 | 사회적 지지 | .366 | .079 | .379 | 4.638*** | .830 | 1.205 |
| R ² | | .328 | | adj. R ² | .278 | | |
| F | | 6.574*** | | Durbin-Waston | 1.644 | | |

※ 1) 성별: 0=여성, 1=남성, 2) 배우자 유무: 0=독신, 1=배우자, 3) 경제활동 참여 여부: 0=미참여, 1=참여, 4) 기초수급여부: 0=차상위계층, 1=기초생활수급계층, 5) 시군: 0=군, 1=시

* p<.05, ** p<.01, *** p<.001

=-.355, $p < .01$), 그 외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 기초수급여부, 시군, 월가구소득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의 두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9.8%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beta = -.309$, p

표 7. 2단계 분석 결과

| 변수 (종속변수: 우울감) | | 비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 | 공선성 통계량 | |
|-------------------|--------------------------|---------|------|---------------------|----------|---------|-------|
| | | B | SE | β | | 공차 | VIF |
| (상수) | | 3.249 | .573 | | 5.666 | | |
| 통제변수 | 성별 ¹⁾ | .166 | .146 | .142 | 1.141 | .450 | 2.225 |
| | 연령 | -.003 | .007 | -.059 | -.522 | .534 | 1.871 |
| | 배우자 유무 ²⁾ | -.187 | .150 | -.160 | -1.241 | .420 | 2.382 |
| | 교육수준 | -.006 | .066 | -.010 | -.090 | .601 | 1.664 |
| | 경제활동 참여 여부 ³⁾ | -.006 | .114 | -.005 | -.056 | .789 | 1.267 |
| | 기초수급 여부 ⁴⁾ | .076 | .106 | .063 | .711 | .885 | 1.130 |
| | 시군 ⁵⁾ | -.014 | .109 | -.012 | -.128 | .810 | 1.235 |
| 독립변수 | 가구월소득 | -.001 | .001 | -.107 | -1.078 | .705 | 1.418 |
| | 사회적 지지 | -.301 | .089 | -.309 | -3.373** | .830 | 1.205 |
| R ² | | .160 | | adj. R ² | | .098 | |
| F | | 2.561** | | Durbin-Watson | | 1.965 | |

※ ¹⁾ 성별: 0=여성, 1=남성, ²⁾ 배우자 유무: 0=독신, 1=배우자, ³⁾ 경제활동 참여 여부: 0=미참여, 1=참여, ⁴⁾ 기초수급여부: 0=차상위계층, 1=기초생활수급계층, ⁵⁾ 시군: 0=군, 1=시

* $p < .05$, ** $p < .01$, *** $p < .001$

<.01),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했다. 통제변수 가운데에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 기초수급여부, 시군, 월가구소득은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 검증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의 세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통제한 후 매개변수인 생활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독립변수인

표 8. 3단계 분석 결과

| 변수 (종속변수: 우울감) | | 비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 | 공선성 통계량 | |
|-------------------|--------------------------|----------|-------|---------------------|-----------|---------|-------|
| | | B | SE | β | | 공차 | VIF |
| (상수) | | 3.721 | .533 | | 6.980 | | |
| 통제변수 | 성별 ¹⁾ | -.026 | .139 | -.022 | -.188 | .414 | 2.413 |
| | 연령 | -.004 | .006 | -.062 | -.598 | .534 | 1.871 |
| | 배우자 유무 ²⁾ | -.141 | .138 | -.121 | -1.024 | .418 | 2.393 |
| | 교육수준 | .025 | .061 | .041 | .414 | .594 | 1.682 |
| | 경제활동 참여 여부 ³⁾ | -.019 | .104 | -.016 | -.185 | .789 | 1.268 |
| | 기초수급여부 ⁴⁾ | .062 | .097 | .052 | .636 | .884 | 1.131 |
| | 시군 ⁵⁾ | -.029 | .100 | -.025 | -.289 | .809 | 1.236 |
| 가구월소득 | .000 | .001 | -.034 | -.369 | .687 | 1.455 | |
| 독립변수 | 사회적 지지 | -.130 | .089 | -.133 | -1.470 | .704 | 1.420 |
| 매개변수 | 생활만족도 | -.466 | .094 | -.461 | -4.961*** | .672 | 1.489 |
| R ² | | .303 | | adj. R ² | | .245 | |
| F | | 5.217*** | | Durbin-Waston | | 1.978 | |

※ 1) 성별: 0=여성, 1=남성, 2) 배우자 유무: 0=독신, 1=배우자, 3) 경제활동 참여 여부: 0=미참여, 1=참여, 4) 기초수급여부: 0=차상위계층, 1=기초생활수급계층, 5) 시군: 0=군, 1=시

* p<.05, ** p<.01, *** p<.001

사회적 지지를 통제한 후 매개변수인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24.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매개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부적(-)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beta = -.461, p < .001$),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를 통제한 후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eta = -.133, p > .05$) 생활만족도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통제변수 가운데에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 기초생활수급형태 여부, 시군, 가구월소득이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Sobel 검증

다문화가정의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식하여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Sobel's Z값이 $-3.385(p < .01)$ 로 산출되었으며, 유의성 기준인 ± 1.96 보다 크게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표 9. 3단계 분석 결과

| 경로 | Z | p |
|----------------------|--------|------|
| 사회적 지지 → 생활만족도 → 우울감 | -3.385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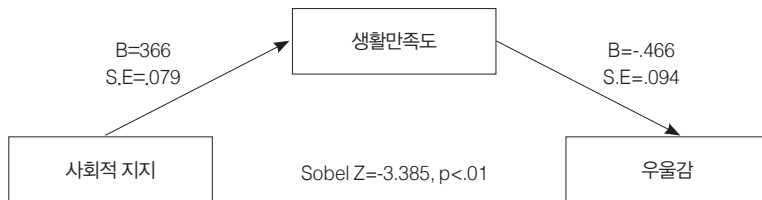


그림 2.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도식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에 따른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패널조사 데이터에서 조사대상자 중 다문화가정 131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 우울감의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먼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경제활동 참여 유무, 기초수급여부이었다. 즉, 경제활동이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으며,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계층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 유무이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참여하는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이하인 집단이 60대 이상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졸업이상이 중학교 졸업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수정된 $R^2=.245$ 이고, F값은 5.217($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우울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beta=-.461$, $p<.001$)로써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매개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

음과 같았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6.574,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2.561, p<.01$), 사회적 지지가 $\beta=-.309(p<.01)$ 으로써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통제된 후 매개변수인 생활만족도가 우울감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217, p<.001$).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3단계의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beta=-.133(p>.05)$ 으로써 2단계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beta=-.309(p<.01)$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3단계의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인 Sobel test 검정에 의한 Z값은 본 연구에서 $-3.385(p<.01)$ 으로 나타남으로써 $Z>1.96$ 또는 $Z<-1.96$ 을 만족하므로 부적(-) 매개효과가 있음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었다.

생활만족도가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지라도 생활만족도에 따라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지라도 자신이 지각하는 생활만족도에 따라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는 다문화가정의 우울감을 낮추는 완충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의 우울감을 감소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예방적이고 정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관련 유관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는 자이존중감,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정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생활만족도와 관

련이 있는 지지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가족 및 배우자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망 프로그램,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들이 함께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인가정보다 우울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초창기부터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인 우울증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을 통해 정기적인 상담과 관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한계가 있다.

첫째, 통제 변수에서 본 연구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이 주된 대상이 됨으로 인해 중산층 이상의 다문화가정과 비교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대상은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경북지역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DSM-IV-TR에서 나타났듯이 우울은 일정기간 동안 5개 증상이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이다.

2014.4.29 접수, 2014.6.18 수정, 2014.6.29 게재확정

참고문헌

- 권구영·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2), 187-219.
- 김계하·선정주·오숙희, 2013,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의 스트레스, 자존감 및 무력감, 지역

- 사회간호학회지, 24(1), 29-39.
- 김민경·박경애, 2012,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20.
-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29-256.
- 김진경, 2012,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1), 55-64.
- 김진희·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김창기·이진성, 2012,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296-307.
- 김한성·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177-209.
- 김현실, 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20(2), 188-198.
- 노소영·김은영, 2012,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4(4), 370-379.
- 박민서,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393-402.
- 이영희, 2010,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근거이론개입, 사회복지개발연구, 16(3), 265-287.
- 이민아, 2010, 이민 전·후의 연결망이 결혼이주자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도와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7, 31-60.
- 임수진·오수성·한규석,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4(3), 515-528.
- 임 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89-221.
- 정기선·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정주연, 2008,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족관계와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 228-262.
- 조인주·현안나, 2012,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문화변용과 적응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177-206.
- 통계청, 2013, 2013년 혼인·이혼 통계자료.

- 하주영·김윤지, 2013,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4), 254-264.
- 허철행·임경숙, 2011, 다문화가정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4), 201-228.
- 현경자·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7(4), 653-67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A. T. 2002.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In R. L. Leahy & E. T. Dowd(Eds.), *Clinical advances in cognitive psychotherapy: Theory and application*, 29-61.
- Bhugra, D., 2003. Migration and Depression, *Acts Psychiatrica Scandinavica* 108(Suppl. 418): 67-72.
- Cohen, S. & syme, S. L,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 Doss, B. D., Mitchell, A. E., & De la GarzaMercer, F. 2008. Marital distress. In M. Hersen, & J. Roszvist(Eds.), *Handbook of psychological assessment, case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Vol. 1:Adults, 563-589. Hoboken, NJL John Wiley & Sons.
- Fenta, H., Hyman, I., & Noh, S. 2004. Determinatis of depression among Ethiopian immigrants and refugees in Toronto.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 363-372.
- Fernandez Ballesteros, R., Zamarron, M. D., and Ruiz, M. A. 2001. The contribution of socio-demographic and psychosocial factors to life satisfaction. *Ageing & Society*, 21, 25-43.
- Huang, Y. C., & Mathers, N. J. 2008. Postnatal depression and the experiencee of South Asian marriage migrant women in Taiwan: Survey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 924-931.
- Kendler, K. S., Myers, J., & Prescott, C.A. 2005. Sex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risk for major depression: A longitudinal study of opposite-sex twin pairs. *Amer. J. Psychiat.*, 162(2), 250-256.
- Lakey, B. & Orehek, E. 2011. Relational regulation theory: A new approach to explain the link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Review*, 118(3), 48-495.
- Nezlek, J. B., Hampton, C. P., & Shean, G. D. 2000. Clinical depression and day-to-day social interaction in a community sample. *J. Agnorm. Psychol.*, 109(1), 11-19.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San Francisco: Freeman*.
- Sumer, S. Poyarazli, S., & Grahame, K. 2008.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In-

- 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6, 42-437.
- Taube-Schiff, M., & Lau, M. A. 2008.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M. Hersen & J. Rosqvist(Eds.), *Handbook of psychological assessment, case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Vol. 1: Adult 319-351.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Valois, Robert F., Keith J. Zullig, E. Scott Huebner, And J. Wanzer Drane. 2004. Life satisfaction and suicide among high school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81-105.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for the Depress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s of Life-Satisfaction

Eun-Jin Lee* · Kyo-Il Lee**

Abstract_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influence factor for the depress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amine the mediated effect of the life-satisfac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result would provide the baseline data for the next research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and establish the social work intervention method to decrease depress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social support and life-satisfaction affect the depress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life-satisfaction has full- mediated effect between social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depress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this research proposes the social work intervention to decrease the depress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clusion.

Keywords_Multicultural family, depression, social support, life-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 Daeguseo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ocial welfare, zzangtori@nate.com

** Doctoral Student, Dept, Social Welfare Department, Daegu University, Social Welfare, rewaev@naver.com